

#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22
----------	---------

발의연월일 : 2023년 2월 8일

발의자 : 김민석, 이종숙, 김순옥,  
김지수, 신찬호, 김현진

## 1. 의결주문

-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인상률은 7.6%, 최저임금은 10% 인상된 것에 비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3%에 그쳐,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에 가까운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과소 책정과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승진 적체 문제로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

-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가연동제 도입,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 지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인건비 산출 등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함.

### 3. 건의안: 붙임 참조

##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원이고,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세세공과금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170만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10% 인상된 것과 소비자물가인상률이 7.6% 오른 것에 비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3%에 불과한 점을 보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693명으로 106% 증가한 것은 열악한 처우로 인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매우 빈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강서구청의 경우 일부 9

급 공무원이 법정 승진연한인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4년간 8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기준인건비가 지자체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게 과소 책정되는 문제에서 기인한다.

2015년 도입된 기준인건비 제도는 행정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정원과 조직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기준인건비 산출로 인해 강서구 정원 관리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탄력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고 있다.

기준인건비 산출 방식을 보면 전년도 기준인력에 국정현안 수요, 행정수요 지표 등을 반영한 지역현안 수요, 효율적 조직관리 인센티브 부여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준인건비 산출의 중요 고려 요소인 행정수요 지표를 분석해보면,

강서구는 수급자수와 총 인구수, 면적, 65세 이상 인구 등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권인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는 자치구 1위, 자동차수는 3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서구의 기준인건비는 1천490억 원 정도로 강남구(1,731억), 송파구(1,604억)와 비교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강서구의 기준인력은 1,658명으로 강남구(1,720명), 송파구(1,757명)와 대비해서 기준인력도 낮게 책정되어 그로 인한 기준인건비가 과소 산정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현재 과소 산출된 지자체의 기준인건비는 제도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며,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인력 관리와 지역 주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

하여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출 시 실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고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 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2023. 2.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